ELIO'S LITTLE DISCOVERIES

Again: Can I Sit Here?

다시 보는 돗자리와 바구니 사이



8세 · Day 026 · 함께 읽기 · 3장면



Elio spread a little mat beside the pond. “A good place to sit,” he said.



He put the basket on the mat. “I can sit here,” he said, looking at the little space beside it.



“Hello, Elio!” called Bori. “Can I sit with you?”

함께 발견해요

읽기 전

「나도 앉아도 될까?」의 앞 세 장을 다시 펼쳐요.

함께 읽을 때

‘I can sit here.’은 바구니 옆자리를 짚으며 읽어 주세요.

생각 나누기

그 자리에 앉으면 어떤 점이 불편할까요?

생활에서

방석과 바구니로 같은 자리를 만들어 보고 앉아 봐요.

《A Place for Bori》의 같은 여섯 그림에 새 대사를 더한 함께 읽기 확장판이에요. 누적 파닉스로 통제한 독립 해독 자료가 아니에요.

ELIO expanded reader · 제1판
교육자·보호자·아이의 사용 검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